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강누정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4월 3일(수요일) / 장 소 : 기숙사 지하 커뮤니티실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손**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p>							
	<p><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p> <p>1. 이 책을 ‘입문용’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강**: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받아온 차별을 작가의 경험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차별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작가의 경험은 나의 공감을 많이 이끌어냈다. 페미니즘에 막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책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차별받아오는 여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회에 의해 강요되는 여성성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 작가의 경험을 통해 문제를 깨닫고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추천한다.</p> <p>손**: 페미니즘은 많은 오해를 지니고 있다. 이 운동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 반대한다. 사실 나도 ‘극’ 페미니스트들을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탈코르셋을 강요하고, 남자를 싫어하며 연애를 큰 잘못된 것 마냥 대하고 비난하는 ‘극’ 페미니스트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다.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로 제대로 차근차근 배워보고 싶었다. 이 책은 페미니즘의 정의부터 의미, 우리가 겪는 삶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잘 나와 있다. 페미니즘은 어려운 운동이며 답이 없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운동에 오해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페미니즘을 설명하는 이 책이 입문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p> <p>전**: 나는 페미니즘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접했다. 내가 접한 페미니즘은 극단적이었다. 머리가 길면 안 되고, 화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페미니즘이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을 통해 페미니즘을 알게 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아예 모르는 나는 정말 정의부터 하나하나 배울 기회가 필요했다. 이 책은 우리가 평소에 겪는 성차별을 작가의 경험으로써</p>							

터 보여준다. 혹은 우리가 몰랐던 차별도 보여준다.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핵심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오해들에 대해서도 다뤄주고 있다. 이 책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입문으로 적절하다.

2.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감상문

손** : 최근 몇 년 전부터 '페미니즘'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많은 이슈를 불러 모았다. 나도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공감되었고 분노에 차게 만들었으며 한편으로는 고독감에 빠트리게 했다. 꽤 오래 전부터 여성 인권을 찾기 위해 시작된 이론이자 정치 운동이지만 이렇게 발전한 사회에서도 여전히 불완전하다. 같은 인간으로서 성별에 따라 차별받는 게 우습지만 현실이다. 불평등한 인식에서 자라왔고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책에서 나오는 페미니스트의 정의는 “모든 성별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51쪽)이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어쩌면 차별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해.'하는 우스갯소리 말처럼 남자 아이들에게 강하고, 당당하고, 듬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여자를 지켜야 하고, 데이트할 때 돈을 다 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자들에 비해 받는 불평등함이 적기 때문에 젠더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장서서 페미니즘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당연히 갖던 우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치마만다 응고지 아다치에'가 겪었던 불평등은 더욱 암울했다. 주차 도움을 받고 팁을 직접 줬지만 그 남자는 아다치에 옆에 있던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반장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는 원하지 않았던 남자아이가 반장이 된다. 호텔에 들어가면 혹시 성 접대일까 싶어서 무수한 질문 세례를 받는다. 클럽에 혼자 들어갈 수 없어서 모르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들어가야 한다. 왜 남자들은 받지 않는 불편함을 다 감수해야 하며 성 접대는 여성이 많이 하고 성폭행은 남성이 많이 하는 걸까? 왜 여자들의 성은 상품화 대상이 되고 더욱 얌보이는 걸까?

페미니즘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 여자라면 모두 당연히 느끼고 공감할만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극'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좋아서 하는 일도 비난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나는 남자친구가 있고, 블라우스를 좋아한다. 화장하는 게 재밌고 좋지만 가끔 귀찮을 때는 하지 않는다. 이런 나의 모습을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화장품은 다 버리고 기초 케어만 하라고 하고, 머리는 짧게 잘라야 한다고 말한다. 남자친구는 필요 없고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며 블라우스 같은 불편한 옷 말고 편한 옷만을 추구한다. '여성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억압받으며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래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박아 하고 있는 일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싫은 행동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억압하는 말들이 더욱 불편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나는 남자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후술근한 모습이라면 좋게 보이지 않는다. 공동체 생활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냄새, 말투 등) 본인을 가꾸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필요한 의무일 것이다.

공감된 말이 “그러다가 더 나중에는 '남자를 미워하지 않으며 남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립글로스를 바르고 하이힐을 즐겨 신는 행복한 아프리카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14쪽)이다. 페미니스트는 누구나 남자를 미워하고 하이힐 같은 불편한 신발을 싫어하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립글로스를 바르는 걸 경멸하는 사람이 아니다. 간혹 주변에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며 남자를 경멸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화장 하지 말고 머리도 짧게 자르라고 강요하면서 더치페이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페미니즘이 이슈가 되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지만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북클럽 주제를 페미니즘으로 정한 것도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지만 정확한 정의와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피해왔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자 선정했다. 특히 입문용으로 짧게 나온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여성이 겪는 불평등함도 알아볼 수 있었고, 개념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었다.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진실성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전** : ◆이 책을 읽기 전 ‘페미니즘’에 대한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의 정의는 모든 성별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었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차별받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페미니즘을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알게 되었다. 내가 그곳에서 본 페미니즘은 굉장히 극단적이었다. 다이어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브래지어를 하면 안 되고, 화장이나 염색, 네일, 페디큐어는 페미니스트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더불어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적으로 깔려있어야 했다. 그런 글들이나 댓글들을 보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없으며 나도 모르는 죄의식이 조금은 생겼다. 이런 것들만을 봐왔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들만 하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것이 페미니즘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이유

14p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에 깔린 부정적인 함의들 예시에 많은 공감이 갔다. 극단적이고 잘못된 페미니즘을 먼저 접한 나로서는 공감이 되는 함의들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는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머리는 짧아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고, 남자친구가 있어서는 안 되며, 브래지어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위의 예시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페미니즘 운동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점점 더 페미니즘에서 멀어졌던 것 같다. 아직까지 내가 진심으로 저런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페미니즘 운동을 할 수 없는 결국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23p에서 ‘우리는 모두 화내야 합니다.’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 화를 낸다는 말이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내가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무관심 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 해결될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북클럽을 통해 여러 권의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을텐데 그 과정에서 그저 책을 읽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들을 읽으면서 올바른 지식을 쌓고 당당하게 이 운동의

의미를 전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27p에서는 예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잘 보여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은 반면, 그 반대의 정보는 적다는 것을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이 되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강요된 것은 사실이다. 목소리를 낮게 내야하고, 치마를 입어야 하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해야 한다는 강요들을 받고 자랐다. 남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강요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조건 돈을 내야하고, 울면 안 되고, 목소리를 두껍고 낮게 내야하고, 기죽은 채 다니면 안 되는 행동들을 강요받으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30p는 고정화된 남성성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이로 인해 남성들이 받는 강요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 부분은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남자의 입장은 아예 배척해버린다는 고정관념을 깨주었다. 이런 부분에서 입문서에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여성의 입장만을 보고 공부한다면 고정관념이 생길 것 같은데 양쪽의 입장을 나타내며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이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

35p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읽고 내가 그동안 이 부분에서 유독 무지했구나를 느꼈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여대는 경쟁이 심하다. 여자의 적은 여자다. 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37p 내용을 보고 나도 무의식적으로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많이 도왔는데 아무래도 남자 형제들보다 훨씬 많이 도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을 때 집안일을 잘하는 여자가 좋은 신붓감이라는 얘기를 더불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나도 내가 집안일 많이 돕고 그만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좋은 신붓감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 부분을 읽고 이런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43p 아래 문단 내용에 많이 공감했다. 이 문제는 성별끼리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마저 각자의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선뜻 '페미니즘'을 알아가는 것을 피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많은 글이나 뉴스를 보았기 때문에 조용히 묻어가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젠더에 대한 얘기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 현상에 대해 공부한다면 다양한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하며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51p에 페미니스트의 정의가 나오는데 제대로 된 정의를 알게 된 건 처음이었다. 이전에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 하는 운동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정의를 읽고 페미니즘은 여성에 한정된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여성의 권리만은 주장하는 운동이 아니며 남성과 여성 모두 각자의 성에 맞는 역할을 가지며 평등하게 살기 위해 하는 운동임을 알았다. 이러한 정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해 남자들의 거부감이 심한 것 같다.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거부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65p 이 책을 읽으며 나도 초반에 친위 아줌마는 글쓴이처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고 나도 모르게 배신감이 들었다. 그동안

나도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기 때문에 더 당황했던 것 같다. 또한 뒤에 친위 아줌마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음에도 이혼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아는 것마저 숨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한계처럼 다가와서 안타까웠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그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알게 되었다. 여성만 페미니스트라는 생각이 변했다. 페미니즘은 모든 성별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평등하기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사회 운동이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90%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생겼던 것 같다. 남자들은 오래부터 당연시 여겨진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페미니즘 운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페미니즘은 남성들의 권력을 빼앗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다. 그들이 그들의 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도 평등하게 성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 과정에서 반대로 남성의 성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맞다. 이 책은 페미니즘을 아는 데에 입문서로 적합하다. 장황하고 길지 않은 내용으로 페미니즘의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다. 또한 작가가 직접 겪은 경험들을 얘기하며 어떤 식으로 남녀가 고정되어온 성역할을 강요받고 살았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공감을 이끈다. 그동안 아무 문제로 여기지 않을 만큼 고정된 성 역할에 익숙해져있었다. 이 책을 읽으며 그런 생각에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런 강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좋아하며, 자신을 꾸미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혁명 운동가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운동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극단적으로 다가간다면 거부감이 든다. 이 책을 통해 모든 성별이 페미니즘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해나갔으면 좋겠다.

강** : 페미니즘의 여성만이 문제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젠더에 대해 많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상황들에게 남성들이 나서서 말할 필요가 있다. 남자든, 여자든 오늘날의 젠더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함을 알고 있어야한다.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 더 잘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모든 인권 운동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서 생긴다고 생각된다. 모든 사람이 이것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바뀌어 나가는 것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바뀌고, 내 주변 사람이 바뀌고 점차 바뀌게 된다면 나는 이 문제가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아쉬운 점은 딱히 없다. 좋은 점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인권 문제인 페미니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저술한 것이다. 책 중간 중간의 약간의 유머가 나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 또한 필자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경험들이 주를 이해 더 마음에 와닿았다. 또한 필자의 삶 뿐만 아닌 필자의 주변 인물 중 여성성을 대표하는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섹스로서의 성이 아닌 젠더로서의 성을 의미한다.) 인물에 대해 서술하며 페미니즘이 여성에게 필요한 이유를 말한다. 이 책은 여성에게 사회가 주장하는 대로, 그것에 대해 억지로 맞춰서 사는 인간이 아닌 스스로가 가장 진실되고 인간적인 자아로 살 수 있다 말한다.

책을 읽으며 많은 공감을 했다. 한국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보다는 여성이 사회/문화적으로 더 많은 억압을 받고 그에 맞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는 <완벽한 아내>가 나온다. 이 여성은 필자의 주변

인물이다. 이 여성은 주변인들에게 완벽한 아내로 칭송받는다. 그녀는 남편과 가정에게 헌신하는, 사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내> 혹은 <이상적인 어머니>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 스스로의 자아로는 평가 받지 못한다. 그녀는 오로지 남편과 가정에 의해 서술될 뿐이다. 그녀가 지닌 개성은 완벽한 아내에게는 필요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녀는 그런 삶에 더욱 완벽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은 버린다. 나는 이 여성을 보며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아직 여성에게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를 원한다. 모성애를 강요하는 것이다.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더 강조되는 사회. 아는 이 사회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남자, 자녀>의 구성되는 것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의 구성인데 왜 우리 사회에는 어머니의 모성애가 더 강조가 되는 것일까? 나는 이 것을 사회/문화가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나가야 하며 여성에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자다운 일이다.> 라는 사회적인 통념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성의 일만이 아닌 가정에 속하는 모두의 일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쉽게 서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막힘이 없이 술술 읽힌다. 내가 왜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하는지 <여성>이라면 살아오면서 느꼈던 의문점에 대해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고 여성에게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 책을 추천한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없는 젠더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이 주장될 수 밖에 없는 사회/문화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4월 3일

참가자대표 : 강**

복클럽 운영보고서

복클럽 팀명	강누정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1일(수요일) / 장 소 : 기숙사 커뮤니티실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손**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p>							
	<p><백래시></p> <p>1. 미국의 현실을 드러낸 책임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강**: 1990년대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가 읽는 장들이 다 2019년 한국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직장을 다니는 것을 죄를 짓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흡사하다.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눈치를 주고, 해고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간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승진은 물론 일자리를 잃는 위기에까지 처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문제로 2018년 출산율은 0.98까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치이다. 이런 수치를 보고 남자들은 또 여성 탓을 한다. 결국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여성들은 끊임없이 차별 받고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들은 가부장제로 이루어진 가정 속에서 직장으로 다시 나올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여성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p> <p>손**: 이 책에서는 여성들이 경험했던 모욕은 여성 스스로가 자처한 일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여성이 성 범죄를 당하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잘못이다, 파인 옷을 입은 여성의 잘못이다. 라며 가해자인 남성을 문제 삼지 않고 피해자인 여성을 문제 삼는다. 임신에 대한 잘못도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피임약 광고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콘돔광고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으나 피임약 광고는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었다. “내 몸은 내가 챙긴다” 부터 해서 피임약 광고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여성이 진다는 듯이 말한다.</p> <p>전**: 이 책은 다방면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닮아있다. 직장에서 차별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꾸밈노동과 여성의 몸에 대한 부분도 공감이 많이 간다. 심리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는데 평소에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다. 피해자인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현실도 그동안 너무</p>							

당연하게 여겨 와서 몰랐는데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 책의 단어들이 미국 사회에 맞춰져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점점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2. 한국의 꾸밈노동과 미용 산업의 현실에 대한 생각은?

손** : 우리사회는 여전히 여성들에게 예뻐질 것을 강요한다. 마네킹처럼 잘룩한 허리와 풍만한 가슴을 미의 기준으로 삼아 여성들에게 마네킹처럼 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특히 마네킹은 일상생활에서 옷가게만 지나가면 쉽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그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게 은연중에 노출시켜 여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들에게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이자 필수요소이다. 사회가 맞춰놓은 미에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형 강국이다. 이러한 미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성형을 하는 여성도 많아진다. 내 주변 친구들도 항상 다이어트의 압박에 시달린다.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확인하고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운동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질책한다. 인터넷에는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떠돌아다닌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화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는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이렇듯 1990년대 미국에서와 같이 여성들에게는 끊임없는 꾸밈노동이 강요된다. 4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현실과 비슷해서 놀랐다.

강** : 여성의 꾸밈노동에 대한 문제는 광고에서도 나타난다. 강남역에 가면 성형외과 광고가 널려있다. 모델들은 여성들이며,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런 광고들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형에 중독된 것처럼 여긴다. TV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를 보면, 여성 모델이 대부분이다. 남성 모델과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성 모델의 옷만 신체를 드러내 보이는 옷을 입는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에서 여성의 꾸밈노동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다.

전** : 옷가게들을 지나갈 때, 혹은 옷을 사러 갈 때마다 꾸밈노동의 압박을 받게 된다. 강아지한테도 맞는 사이즈의 몸에 딱 붙는 옷들이 대부분이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이런 사이즈의 옷들만이 선택지에 있다 보니 여기에 맞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큰 사이즈의 옷을 입으면 안 좋은 시선을 받는다. 화장을 하지 않으면 어디가 아프냐는 등 질타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여성들은 다이어트의 압박, 화장의 압박 등 끊임없이 꾸밈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3. 여성의 몸은 자유로운가?

전** : 낙태문제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계속해서 대두될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66년 만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을 '영아 살해자'라고 비난한다. 낙태법 외에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 낙태에 대해서만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선택임에도 살인자라는 단어를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후 여성 이기주의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다. 과연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와 산모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립한 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낙태법이 헌법불합치가 된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강** : 직장 여성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여성을 비난한다. 아이를 낳으면 직업을 잃고 가사노동과 육아에 있어서 독박을 쓰게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은 어디를 가든 자신의 몸을 억압받고 있다. 다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외적으로 꾸미는 것에 있어서도 강요받고 평소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한 덕목이며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어머니상을 만들었다. 이처럼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사회가 만든 틀에 갇히는 것이다.

손** : 낙태를 불법으로 정한 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몸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결정도 자신이 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을 상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무작정 낳는 것이 과연 태아와 산모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낙태법이 헌법불합치가 되었을 때 남성들은 여성들의 성 생활이 문란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왜 이 문제에서 성 생활의 문제로 이어지는지도 답답했다. 남성의 성 생활이 문란하면 영웅 취급을 받지만 여성의 성 생활이 문란하면 더럽다고 취급하는 것도 여성의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낙태 이외에도 아직 현실적으로 여성의 몸은 자유롭지 못하다.

2019년 5월 1일

참가자대표 : 강**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강누정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15일(수요일) / 장 소 : 기숙사 커뮤니티실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손**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p>							
	<p><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p> <p>1. 남자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p> <p>손** :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책에 “목소리 내는 여성을 억압할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페미니즘을 공부하자”라는 말에 격한 공감을 했다.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잘 모르면서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을 물리적인 성별로 나눈다면 당연히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지금 현실은 남성이 기득권을 가지는 사회라 여성의 인권을 찾는다면 본인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목소리를 내줘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 여성을 정말 ‘인간’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이다. 그동안 너무 불평등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남성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후배가 “모르니까 배워야죠.”라고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p> <p>전** :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 말로만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겉으로 행동하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 책에서도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은 제대로 된 남자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 악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처럼 정말로 관심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어쩌면 기득권층인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여성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페미니즘이 성장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p> <p>강** : 최근에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들어봤다.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아 잘 모른다고 말했다. 남성들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차별을 겪어보지 못해서 관심이 없을뿐더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한다는 걸 믿고 기다려주면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며 바뀌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책을 선물해 줄 예정이다. 실제로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사회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도 페미니즘을 공부해야한다. 그들은 기득권층이고 가부장</p>							

제의 주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여성만 바뀐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몰래카메라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변해야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반드시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대신 페미니즘 자체가 여성 인권을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성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남성이 낸다면 의미가 바뀔 위험이 있어서 중심은 여성이 되어야 한다.

2. 책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가? 실제 경험과 연결 지어 말해보자.

전** :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사회의 모든 게 남성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성별을 체크할 때도 남성이 먼저 나오고,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다. 뉴스앵커도 남성이 항상 왼쪽에 있다. 주민번호도 남성이 1, 여성이 2로 시작되었다.

뉴스 기사에도 남자 배우는 '배우'라고 표현하지만 여자 배우는 '여배우'라고 표현한다. 남자 경찰이 잘못하면 잘못을 한 그 남자만 욕을 먹지만 여자 경찰이 잘못하면 '여자 경찰 집단'을 묶어 욕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도 차별이 있고 직업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잣대를 요구한다.

남자 연예인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 도박을 해도 금방 연예계에 복귀한다. 하지만 여자 연예인들은 피해자가 되어도 오랫동안 방송에 나오지 못하고 자숙을 하거나 연예계를 떠나야한다. 최근 '최종범-구하라 사건'도 남자가 불법 촬영을 했지만 미용실을 개업하고 잘 사는 반면 여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의식불명에 이른다. '승리 사건'도 성매매와 마약 사용, 불법 촬영과 유포 등 중대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헬스장도 다니며 잘 사는 모습이다. 여성의 성을 이용한 범죄가 너무나도 많고 가볍게 다루어지는 모습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

강** :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남자친구와 사귀게 되면서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형수님'이라고 불렀다는 소설 속 내용이 나의 상황과 똑같아서 공감이 됐다. 형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알 수 없는 불쾌함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왜 불쾌했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책에 "평소에 가사노동 하던 남자들이 명절만 되면 손을 딱 놓는 것. 여성의 가사노동은 일상이고 생활이지만 남자의 가사노동은 행사이다. 때로는 전시되고 은폐된다."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된다. 우리 집도 아버지가 집안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명절만 되면 아무것도 안하고 손을 딱 놓아버린다. 누가 해야 한다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하는 일인데 어떨 때는 전시되고, 은폐되는 모습이 이상하다.

"나쁜 엄마가 되는 건 쉬운데 나쁜 아빠가 되는 건 어렵다."는 부분도 공감이 된다. 엄마는 9를 잘 해주다가 1을 못해주면 나쁜 엄마가 되어버리는데 아빠는 9를 안 하다가 1을 잘 해주면 좋은 아빠가 된다. 연예인 이보영 씨는 "아이가 옷을 얇게 입거나 양말을 벗고 있으면, 왜 춥게 입혔냐 양말은 왜 안 신겼냐며 엄마를 나무란다. 아이가 스스로 벗어던진 건데도 말이다. 또 오빠(남편)가 더 힘이 좋고 품이 넓어 나대신 아이를 안고 있을 때가 있다. 그때 내가 들어온 시나리오라도 옆에서 보고 있을라치면, 주변 시선이 나한테 쏠린다. 그 순간 난 나쁜 엄마, 시집 잘 간 여자가 되어 있다. '엄마는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속사정을 몰라도 그렇게 평가를 내려버린다. 이런 일들에 대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다."(출처:sbs '마더' 인터뷰)고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자식을 돌봐야하는 의무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여성에게만 헌신을 요구한다.

손** : 명절에 집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갔다. 많은 여성들은 느끼고 있을 것이다. 주방에는 여자들만 있고 명절 음식을 돕는 것도 대부분 딸들이다. 남자 어른들은 텔레비전 앞에, 아들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가사노동에 대해 남자가 조금만 하면 좋은 남편이고, 여자가 조금만 안하면 나쁜 아내가 된다. 가장 가깝고 작은 사회의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불평등은 국가 전체로 나아가면 더욱 커진다.

책에서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남성을 억압하는 제도와 관습(국방의 의무, 남성성 강요)을 정한 것도 기득권층에 있는 남성들이 만든 가부장제에 따른 것인데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책의 작가처럼 남성이 페미니즘 책을 쓰고 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젠더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을 가르치는데 살아가는데 해로울 것이 없다. 유튜버 '에바'는 페미니즘 이야기를 했다가 욕을 먹고 살해 협박까지 당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다른 사회가 안타깝다.

2019 년 5월 15일

참가자대표 : 강**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강누정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9년 5월 28일(화요일) / 장 소 : 기숙사 커뮤니티실							
참석자 명단	학번	2016****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손**	학번		이름	
	학번	2016****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p> <p><나의 페미니즘 동아리></p> <p>1. 마지막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읽은 책과 이번 책의 다른 점은?</p> <p>전** :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자궁’이란 말이 ‘아들 자’를 뜻해서 대신 ‘포궁’이란 말을 사용해야한다.</p> <p>새로운 성병의 이름도 들었는데 ‘사면발이’나 ‘헤르페스’ 등이 나오는데 남자한테는 영향력이 없지만 여자한테 옮겨왔을 때 고통을 초래하는 걸 새로 알았다. 남성들이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성병 예방에 덜 적극적이라는 걸 깨달았다.</p> <p>이 책에서는 남자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저번 시간에 읽은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가 떠오르며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페미니즘 운동이라도 남자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편을 나누는 느낌이라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p> <p>강** :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이고 여성의 시각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아서 공감된 점이 많았다. 동아리 멤버들이 서로 싸우는 부분에서 우리가 북클럽을 하며 토의한 내용들이나 다른 사람과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와서 신기했다.</p> <p>하지만 너무 래디컬한 소설이라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있었다. 기혼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무조건 비혼 비출산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불편했다.</p> <p>손** : 전에 읽었던 책들은 페미니즘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고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나의 페미니즘 동아리>도 여러 사례와 대화체를 통해 읽기 쉬웠는데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쓴 소설이라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다. 미러링을 통한 자극적인 단어 ‘자이루’, ‘자이팅’ 등을 서슴없이 내뱉는 등 페미니즘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다. 그동안 남자도 ‘남자다워야 한다.’는 강인한 이미지를 강요받는다고 생각해서 ‘왜 남자도 역차별을 받으면서 인권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이 책을 통해 남성이 받는 차별은 지배 체제 자체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코</p>							

차별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2. 책을 읽으며 인상 깊은 점은?

강** : 남자 바지가 넓으면서 주머니가 깊고 편한 옷인데 여자 옷은 불편하고 꾸밈 노동을 강요하는 느낌이다. 교복도 불편한 치마만 입어야 하고, 바지도 못 입게 해서 추운 겨울에도 다리를 내놓고 다녀야 하는 게 불편했다. 현재 여성들의 옷은 작고 딱 붙고 짧은 옷들만 나오는 상황이라 공감이 됐다. 입술 안 바르면 아파보인다고, 화장 안 하면 왜 안 꾸미냐고 창피함을 주는 상황들이 생각났다. 꾸밈 노동이 점점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가는 것은 정말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자는 성관계를 많이 했다고 하면 영웅이 되지만 여자는 걸레가 된다.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성에 대한 자유가 다르다.

동아리 멤버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머리가 길고 화장하는 페미니스트한테 슛 컷을 하고 화장하지 말라고 탈 코르셋을 강요하는 게 소설에 나타났다. 아직 페미니스트끼리도 의견이 다르고 더욱 발전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전** : ‘스텔싱’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는데 그게 콘돔에 구멍 뚫는 것이라는 게 정말 충격이었다. 여성의 동의 없이 임신을 시키고 억지로 결혼하려고 한 모습은 명백한 범죄이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남자의 모습이나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길래 단어까지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위 나갈 때 마스크 쓰고 선 캡 쓰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가리고 나가면 당당하지 못하다고 욕먹고, 가리지 않고 나가면 얼굴평가를 당하거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 심지어 누구 한 명을 잡아 죽이겠다는 무서운 말까지 듣고 실제로 끌려가는 상황도 있다고 한다.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슬펐다.

각자 위치에서 맞는 방법으로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게 좋은데 이 소설에서 ‘지혜’가 동화를 써서 왕자가 공주를 구하는 모습이 아닌 여성이 진취적으로 이끌어 가는 걸 쓴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는 연애를 너무 강요하는 느낌이다. 나는 괜찮지만 주변에서 왜 아직도 연애를 안 하나, 누구 소개시켜 줄까, 혼자 외롭지 않냐 등 너무 많은 오지랖을 부린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남자 인물들이 모두 나쁜 사람들이고 연애하지 않고 즐기라고 하는 주인공들을 보며 우리 사회도 연애를 강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손** : ‘엄마 몰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엄마가 자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찍어서 공유하고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와 그 대상이 아빠는 제외되고 엄마에게만 해당한다는 게 슬펐다.

이 소설에서는 성관계나 임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등장인물 ‘유진’이가 임신해서 낙태를 한 상황과 ‘지혜’가 남자친구의 의도에 따라 구멍 뚫린 콘돔을 사용한 모습이 소개되었다. 섹스와 임신이 여성의 의무이고 안 좋은 상황은 항상 여성에게 비난을 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고 억울하게 느껴졌다. 우리나라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한

다. 아직 변화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3. 북클럽을 마치며 느낀 점은?

손** : 페미니즘을 알팍하게만 알고 있어서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현실들을 되짚어보는 기회였다. 우리사회에 깔려있는 가부장제가 불편했지만 왜 그런지 알지 못했는데 책에서 나오는 사례와 내가 경험한 일들이 오버랩 되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책의 종류도 다양해서 좋았다. 기초가 될 수 있는 책을 시작으로 외국 페미니스트의 관점과 남성 페미니스트, 래디컬 페미니스트까지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당장 많은 게 변하기란 힘들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책에서 다른 페미니즘 책들을 추천해준 게 많아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책들을 읽어야겠다.

전** :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만 알고 자세히는 모르고 있어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엄두가 안 났다. 이번 북클럽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입문인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를 통해 페미니즘의 정의를 다시 배우고, 백래시를 통해 미국의 페미니즘 공부했다. 다른 두권을 읽으면서 한국의 페미니즘과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을 깨닫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해오던 것들이 차별인지 모르고 무지했는데 이번 북클럽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다양한 용어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다. 사실 페미니즘은 꺼내기 어려운 대화 주제이다. 같은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서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의견을 알게 되어서 페미니즘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페미니즘 관련 서적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앞으로 한 권씩 천천히 읽어나갈 것이다.

강** : 나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여성으로 살아가며 불편한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내가 왜 불편한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페미니즘은 내게 이 불편함의 이유를 알려주었다. 나는 이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었다. 사회 속에 만연한 여성혐오, 내가 여성이라서 받는 차별들. 페미니즘을 알면 알수록 불편함은 더 심해졌다. 하지만 나는 알기를 멈출 수 없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나는 페미니스트가 되기로 결정했다. 주제를 페미니즘으로 고르며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과 책을 선정하고 읽었다.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읽고 나서 친구들과 토의하는 과정이 재밌어서 북클럽 날이 기다려졌다. 토의는 거의 여혐이 만연한 사회에 대한 화로 끝났으나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즐거웠다. 북클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읽은 책들이 페미니즘의 시작점과 같다면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책을 읽어 나가고 싶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될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인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	--

2019 년 5월 28일

참가자대표 : 강**